

# 의학전문직업성 특집을 기획하면서

고 윤 석\* | <sup>1</sup>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 의학과, <sup>2</sup>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 Introductory remark on the focused issue of medical professionalism

Younsuck Koh, MD\*

<sup>1</sup>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up>2</sup>Department of Pulmona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Younsuck Koh, E-mail: yskoh@amc.seoul.kr

Received September 15, 2011 · Accepted September 25, 2011

얼마 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장려하기 위한 심포지움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임종환자와 담당의사 사이의 열린 대화의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의사들이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의사협회신문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 있다. 의사의 역할과 위치는 사회에 의하여 규정되므로 서구의 의사들은 단체를 구성하여 스스로의 행위규범을 준수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의학전문인(medical professional)으로서 위상과 명예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국내 의사들은 학문적 측면에서 선진의료의 정착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서구 의사단체들이 추구해 온 사회와의 소통이나 행위규범 실천의 부족과 미숙함으로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는 의학전문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가 보험제도로써 의료서비스 행위와 수가를 규제함으로써 타 직종에 비하여 높았던 소득수준도 허물어지고 있으며 의사들은 자신들이 전문가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환자들도 일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출산을 위하여 멀리 떨어진 종합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의사들 대부분이 의과대학 졸업 후 전문수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아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일차진료의 역할과 지위는 이전보다 더 저하되었다. 이로 인하여 개원의사들은 병·의원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차병원들은 2시간 대기 5분 진료라는 비난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더하여 의료정책 결정자들로부터는 의료인들이 소위 '쌍벌제법'과 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

사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관리하도록 의사에게 위탁하면서 의사는 자신의 이익보다 환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사의 이러한 행위 규범은 우리 사회에서는 인술로, 서양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 [1]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번 특집은 의학전문직업성에 관한 것이다. Medical professionalism은 서구 의학에서도 사회상황에 따라 진화하여 왔고 진화되고 있으므로 적합한 우리 용어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문헌상에서 여러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 특집에서는 medical professionalism을 의학전문직업성으로 번역하였다. 한 사회가 가진 의료시스템은 의사-환자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다. 우리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이나 보험급여 등에 의하여 진료 상황이 크게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의료 상황이 다른 서구에서 정의한 의학전문직업성이 우리 의료계에도 적합한 지에 대한 논의와 성찰은 필요하다. 이번 특집은 서구에서 정립되어온 의학전문직업성을 살펴보고 우리 의학사에서는 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오늘날 우리 개원가 및 교육병원에서의 의료인들에게 의학전문직업성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와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의료전문인으로서의 의료인에 대한 시각을 조망해보자 하였다.

전문직업성도 경제적 여건과 정치적 상황 등과 같은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 그 개념이 바뀌어 가지만 의료인이 숙련 의료제공자가 아닌 전문인으로서 위상 매김을 하려면 자신의 이익추구와 더불어 공공의 이익과 신뢰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사회와 소통을 하여야 한다. 사회와 소통하고자 할 때 의료인이 갖추어야 하는 행동규범이 바로 의학전문직업성이며 그 소통에 실패할 때 우리 의료인들은 진료에서 중요한 의료인의 자율성에 대하여 또 다른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

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전문직업성은 의사들 스스로 읊아매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며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도 옳지 않다[2]. 본 특집의 저자들은 요청 받은 주제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였으므로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읽기를 바라며 이번 특집을 통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하여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REFERENCES

1. ABIM Foundation.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ACP-ASIM Foundation.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American Society of Internal Medicine;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new millennium: a physician charter. *Ann Intern Med* 2002;136:243-2466.
2. Ham C, Alberti KG. The medical profession,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BMJ* 2002;324:838-842.